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Zinzendorf's Biblical Worldview and Work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biblical worldview and work of Count Nikolaus L. von Zinzendorf. He was one of the representing leaders of the pietism movement in Germany who transformed the world in the 18th century. First, he accepted refugees who were persecuted in Bohemia and Moravia into his land. Then he changed them and finally bore precious fruits contributing to world mission. His faith had the vitality that prioriti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in heart, not the theology and rationality. He deeply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Bible and created the so-called 'losungen' movement worldwide so that people can meditate on the Word of God every day. Believing in the power of prayer, he created a prayer chain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and started an intercessory prayer movement which continued 100 years. Furthermore, his ministry was very creative and innovative, such as developing various music ministries. In addition, he pursued the unity of church transcending denominations and was a pioneer who opened women's ministry. Therefore, after examining these points in detail,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his legacy for the modern Korean Christians are presented.

Key words: Zinzendorf, Herrnhut, losung, prayer, world mission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5일 최종수정, 11월 27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 지원 사업 제202400710001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로 헤른후터 형제교회(Herrnhuter Brüdergemeine)의 설립자다. 원래 정부의 법률 고문관이었으나 젊어서 신앙생활에 헌신하였고 체코지역에서 박해당하여 독일로 피난 온 개신교 신자들을 자신의 영지로 영접하여 그 지역을 헤른후트(Herrnhut: ‘주님의 피난처’라는 뜻)라고 불렀다. 그 후 한동안 분열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는 관직을 내려놓았다. 한때 오해를 받아 작센 지방에서 추방되자 그는 영국으로 간 후 다시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지를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추방령이 해제되자 그는 다시 귀국하여 헤른후트에 거주하면서 세계 선교에 힘썼다. 그의 영향을 받은 칼 귀츨라프(Karl F. A. Gützlaff, 1803-1851)는 1832년에 최초로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였다(오현기, 2012: 237-278; 2014; 2024). 진젠도르프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합운동, 기도 사역을 통한 부흥, 성경 묵상, 음악 사역, 여성 사역 그리고 세계 선교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본 논문은 경건한 신앙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독일어와 영어로 된 다양한 문헌이 많이 있으나(Brecht & Peucker, 2005; Breul, 2023; Ense, 2019; Faix, 2012; Geiger, 2009; Herzler, 2010; Ludwig, 2010; Lückel, 2016; Meyer, 2009; Pfister, 2019; Reimann, 2019; Richter, 2018; Smaby, 2011) 국내 학술 문헌으로 그에 관한 일반적 소개(정준기, 1992)나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김현진, 2019: 213-252)와 소그룹 방향성(백현덕, 2023) 외에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과 사역을 관련 문헌들을 통해 고찰한 후 그의 유산을 살펴보고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사역이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결론에서 제시하겠다.

II.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1. 진젠도르프의 생애

진젠도르프는 독일 드레스덴(Dresden)에서 게오르그 진젠도르프 백작(Georg Ludwig (Reichs-) Graf von Zinzendorf und Pottendorf, 1662-1700)과 샬로테 게르스도르프(Charlotte Justine Freiin von Gersdorff, 1675-1763)의 아들로 1700년에 태어났다. 부친은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천하여 모친은 1704년 두비슬라브 나즈메르(Dubislav Gneomar von Natzmer)와 재혼했다. 그 후 그는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났는데 그녀는 불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시리아어 등에 능통하여 성경을 원어로 읽었으며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 1635-1705)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슈페너와 그를 이은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가 종종 방문하여 니콜라우스는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3세부터 6세까지 그의 가정교사였던 에델링(Christian Edeling)의 경건한 교육으로 그는 이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 스웨덴 군대가 1706년에 작센을 침공하였는데 어린 니콜라우스가 경건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고 한다(Weinlick, 1956: 19ff).

1710년부터 1715년까지 그는 할레(Halle)에 있는 프랑케 학교(Franckesche Pädagogium)에 다녔으며 거기서 가장 높은 귀족 출신이었으므로 프랑케 부부 사이에 앉아 식사하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학교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특히 남인도 최초의 선교사였던 플뤼트차우(Heinrich Plütschau, 1676-1752)와 지겐발크(Bartholomäus Ziegenbalg, 1682-1719)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다. 1715년경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겨자씨 모임(Senfkorner-Orden)’을 설립했는데 그 목적은 회원들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성인이 되자 그는 이 모임을 다시 활성화했고 많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합류했는데 그중에는 덴마크 왕, 캔터베리 대주교 그리고 파리 대주교도 있었다.

1716년에 그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 입학했다. 3년 후, 그는 1719년부터 1720년까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의 폭을 넓혔다. 여행 중, 그는 뒤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을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ti, 1589-1624)의 작품인 에케호모(Ecce Homo: “이 사람을 보라”)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 그림은 다음과 같고 그 밑에는 아래와 같은 말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 겪었다.
(Ego pro te haec passus sum)



그림-1.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ti)의 에케호모(Ecce Homo, “이 사람을 보라”)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omenico.jpg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Tu vero quid fecisti pro me)

(zinzendorf.com/pages/index.php?id=ecce-homo)

이 그림을 본 후 진젠도르프는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것을 헌신했다고 한다. 나아가 여행 중에 그는 드 노아유(Louis-Antoine de Noailles, 1651-1729) 프랑스 추기경을 포함해 다른 교파 사람들과도 우정을 쌓았는데(Schneider, 2004: 691-697) 이것은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1721년부터 1732년까지 그는 드레스덴에서 아우구스투스 대왕(August der Starke, 1670-1733)을 섬기는 법원과 사법부에서 일하면서 1722년 에르트무트(Erdmuthe D. Gräfin Reuß-Ebersdorf)와 결혼했다. 이 부부는 슬하에 1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네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722년 6월에 그는 체코에서 온 개신교 난민을 받아들여 그의 영지였던 베르텔스도르프(Berthelsdorf) 근처에 헤른후트라는 정착지를 제공했다. 이곳의 회중은 독립된 형제교회로 성장해 1727년 8월 13일 모라비안 교회로 독립했다.

1734년에 진젠도르프는 루터교 신학자로 안수받았지만 1736년에는 그의 형제교회가 너무 독립적으로 되면서 통일된 국가교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작센에서 추방되었다. 그러자 그는 아내에게 영지를 이양한 후 헤센(Hessen)주의 베틀라우(Wetterau)로 가서 1736년에 마리엔보른(Marienborn), 1738년에는 헤른하그(Herrnhag: ‘주님의 숲’이라는 뜻)에 공동체를 설립했는데 당시 이곳의 규모는 헤른후트보다 더 컸다. 1737년에 그는 마리엔보른에서 형제 교단의 주교(Bischof der Brüder-Unität)로 선임되었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리보니아(Livonia)¹⁾, 영국, 북미,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성 토마스 섬 등지에 설교자로 여행하며 선교했다. 나아가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안내자 와이저(Conrad Weiser)와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 부족의 추장을 만나 전도했다. 1747년에 그는 다시 작센으로 돌아오도록 허락받았고 1749년에는 모라비안 교회를 위한 설교의 자유와 작센 주교회와 연결된 교회로 인정받았다. 1750년부터 그는 주로 런던에 거주하다가 1755년부터는 다시 베르텔스도르프에서 살았다. 1760년 소천하기까지 마지막 20년간 그는 여러 비판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그의 후계자였던 슈팡엔베르그(August Gottlieb Spangenberg, 1704-1792)는 그를 변호하는 전기를 썼다(Spangenberg, 1772-1775).

1) 현재 라트비아의 동북부에서 에스토니아 남부에 걸친 지역의 명칭이다.

2. 연합운동의 선구자

1722년에 진젠도르프가 체코지역에서 박해받던 개신교 난민을 받아 헤른후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1727년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그러자 그는 공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공동체 사역에 헌신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분열은 주님의 뜻에 어긋남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헤른후트 공동체는 자발적 규율인 ‘형제 협약(Brüderlicher Vertrag)’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와 함께 그가 제정한 일련의 규칙에 1727년 5월 12일 구성원 모두 서명했다. 수년에 걸쳐 개정된 이 문서는 오늘날 “모라비아 언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라비안 교회는 특정 신조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을 강조하는 몇 안 되는 교단 중 하나이다(Freeman, 1998: 234-35). 이날 그는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주는 축복에 대해 세 시간 동안 설교했고 회중은 과거의 다툼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사랑과 소박함으로 살 것을 다짐했다. 그리하여 헤른후트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회중이 되었고 평화와 사랑이 넘쳤다.

1735년부터 공개 저술에서 그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루터파 고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사적인 편지에서는 어떤 고백에도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파 그리고 루터파 교회를 “분파”라고 부르면서 어떤 특정 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살아 있는 교제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하여 독일 개신교도들이 분열된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연합 운동의 선구자(the ecumenical pioneer)라고 불린다(zinzendorf.com). 이것은 그가 20대 초반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짝튼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교단 분열로 얼룩진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며 이 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최용준, 2006).

3. 기도를 통한 부흥

1727년 8월 10일, 베르텔스도르프의 루터교회 로테(Johann A. Rothe, 1688-1758) 목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 기도하면서 땅에 엎드려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개의 언어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회중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정까지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 후 8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로테 목사는 베르텔스도르프 인근 회중과의 합동 성찬식에 헤른후트 공동체를 초대했다. 예배에 모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과 아직

박해받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지속적인 연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진젠도르프도 참회의 고백을 했다. 그러자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 “모라비안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헤른후트 공동체에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었다.

그 후 헤른후트 공동체는 더욱 영적으로 하나 되었고 그의 지속적인 소그룹(Banden) 성경공부와 기도 사역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2주 후, 이 공동체는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가 회중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밤낮으로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기로 서약했다. 그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1827년까지 100년간 이들은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계속했다.

헤른후트 성도들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완성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사상에 의한 기독교인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급진적 실험의 시작이었다(Taylor, 1967: 32-33). 그 결과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부흥 운동은 이들의 헌신과 기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영국의 모라비안 선교사 뵐러(Peter Boehler, 1712-1775)는 영국 부흥의 지도자였던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를 만나 그의 개종을 이끌었다(Curtis, 2011: zinzendorf.com/pages/index.php?id=a-golden-summer). 이러한 중보기도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www.24-7prayer.com) 이들이 온종일 기도 체인을 통해 100년간 중보기도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로 알려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도 도전을 받아 더욱 기도로 부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4.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

그는 먼저 지성적인 신앙보다 인격적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강조했다. 당시 계몽주의가 이성을 강조하며 기독교를 도덕화하는 것과 동시에 프랑케가 경건주의적 율법주의, 즉 특정 유형의 회심을 진정한 기독교의 표징으로 인정하려 했던 방식도 그는 거부했다. 그는 새 생명의 기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복음의 핵심은 구세주와의 인격적 관계라고 보았고 이것을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지성으로 아는 사람은 결국 무신론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 자신을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는 이해하면서(요 1:1-18, 골 1:15-20, 히 1:1-3)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세상에 태어난 각 사람을 아시며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가능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급진적 은둔주의와 수동적

경건주의 모두 반대하면서 신앙에 입각한 즐거운 공동체적 삶을 강조했다. 이것은 지나친 지성주의도 아니며 감성주의도 아닌 머리와 마음의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자를 함께 주신 창조주의 뜻은 우리가 이 두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으로 그는 보았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zinzendorfs-theology).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찢린 옆구리의 상처(Seitenhöhlchen)를 깊이 묵상하며 강조했다(Zinzendorf, 1751). 그는 이 상처가 영적 탄생의 기관이며, 죽음에서 영생으로 전환하는 곳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는 이곳과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 사이에 유사점을 보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가 열렸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잠자는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 하와를 꺼내신 것처럼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꺼내셨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곳으로 여러 찬양에 등장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먹고, 일하고, 산책하는 보호의 피난처로 묵상되었다. 이처럼 이것은 그의 구속적 세계관의 ‘중심점’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개인적 신앙의 소망을 나타내는 주된 상징이었다(Vogt, 2006: 175-212).

둘째로 그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이란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을 강조하는 당시의 시대사조도 인정하면서 신앙은 개인적으로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인격이 성장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은 주변 형제자매들의 도움과 교정이 필요하고 교회는 불신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보았다. 그는 교회란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요 교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어 “Gemeine”(현대 독일어는 “Gemeinde”)는 그가 교회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이다. 그의 신학에 관해 세 권을 저술한 헤르만 플리트(Hermann Plitt)은 구세주의 제자들, 초대교회 및 교부들로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교제에 대한 이해의 발전을 추적하면서(Plitt, 1869-71) 교회의 본질을 영적이고 영원하며, 구성원들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간에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형태는 필연적으로 인간관계, 지역 및 시간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즉 공동체란 지역적인 동시에 보편적이며 영적 실재인 살아 있는 유기체를 의미했다. 각자는 자신의 교파에 머물지만, 그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유대이다. 따라서 1790년까지 모라비안 교회는 루터파, 개혁파 그리고 모라비안적 정체성을 함께 유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영적 분별도 강조하며 모든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한계도 보았다. 가령 그는 록(Johann F. Rock, 1678-1749)²의 카리스마 넘치는 공동체에서 쓰러져, 떨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열정적인 경건주의자들을 만났다. 그는 록을 존경하고 그런 현상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회의적으로 되었고 더 많은 비성경적 관행

2) 독일의 경건주의자이자 신비주의자였으며 분리주의적 영감 운동의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자였다.

이 신성한 권위로 설명되자 그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나아가 그는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 모두 한 공동체로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헤른후트 성도들은 한 지체가 소천하면 지위에 무관하게 교회 옆 묘지인 하나님의 밭(Gottesacker)에 평등하게 묻힌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이곳에 함께 모여 묘지를 둘러싸고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런 그의 생각은 교회의 유기체성을 강조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입장과 유사하며(최용준, 2012: 229-254) 한국 교회도 이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말년에 그는 ‘진젠도르프 백작’보다 단지 ‘루드비히 형제’로 불리기 원했으며 모라비안 교회를 형제교회(Brüdergemeinde)로 불렀다는 점에서 그의 겸손한 인격과 함께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 기초한 성경적 평등사상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직분을 자칫 계급으로 인식하는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그는 성경의 각 책은 저자의 상황에서 쓰여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말씀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각 저자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주신 것과 다르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알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사람과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풍성함을 발견하며, 따라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기본 진리는 명확하게 주신 반면 성찬이나 종말적 사건들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 남겨 두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찾는 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본 진리를 찾고 지식을 더 얻으려 노력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지식보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성경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Freeman, 2011, zinzendorf.com/pages/index.php?id=zinzendorfs-theology).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성경 묵상을 위해 1728년 5월 3일 소위 로중(Die Losungen)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일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나중에는 구약 및 신약에서 각각 관련 있는 한 구절을 제비뽑아 만드는데 1731년에 첫 인쇄본이 출판되었고 지금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온라인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losungen.de). 현재 대부분 독일 개신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경건의 시간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한국 교회도 이를 더욱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5. 헤른후트 공동체의 발전

헤른후트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진젠도르프는 초기 보헤미안 교회의 헌법인 권징 조례(Ratio

Disciplinae) 사본을 받게 되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는 형제 연합(Unitas Fratrum)의 신학과 헤른후트 교단 사이에 깊은 유사성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체코 출신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의 글에 매우 공감했고 초기 공동체 연합에 그의 많은 생각을 적용했다(Taylor, 1967: 32). 그는 삶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인 필요가 있으며 구주와 교체하는 정도도 다름을 인정했다(Freeman, 1998: 262). 직분으로는 장로, 교사, 조력자, 감독자, 훈계자, 하인, 간호사, 자선 노동자, 경제 감독자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직분 개념의 민주화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 봉사하도록 참여시켰다. 그는 1741년까지 이 공동체의 대표로 섬겼으나 나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선포하였고 그 이후부터 식사 시간에 항상 주님의 자리를 비우는 관습이 있다. 나아가 세족식도 정기적으로 행하여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실천했다. 또한, 이 공동체는 “베들레헴의 별”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별은 지금까지도 독일 전역에 대림절부터 성탄절 기간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상가에 걸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이 공동체는 전 세계로 흩어져 소위 ‘모라비안 교회’로 불리며 백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www.moravian.org).

6. 음악 사역

진젠도르프는 예배시 음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약 2천 곡의 찬송을 작사했다(Zinzendorf, 1735). 따라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찬송은 그들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다. 추가된 찬송가는 주로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작곡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라비안 음악”이라고 부른다. 모라비안 교회당에는 제단이나 스테인드글라스 등 시각적으로 주의를 끄는 것이 없다. 전체 예배당이 흰색이며 회중이 앉는 의자와 뒤쪽에 있는 오르간이 전부이다. 따라서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강조하는 시각적 요소보다 음악을 통한 청각적 요소를 더 강조했다. 이것은 그의 성경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아트우드(Craig Atwood)는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진젠도르프는 마음 종교의 진정한 언어는 노래라고 주장했다.... 그와 형제교회에게... 기독교 진리는 조직 신학과 논쟁이 아니라 시와 노래에서 가장 잘 전달된다”고 적절히 지적했다(Atwood, 1995: 136f). 모라비안 공동체 예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찬양 시간이다. 대부분 찬송가로 구성된 예배는 다양한 찬송이 함께 짜여 그날 또는 행사의 특정 주제를 발전시켜 찬양 자체가 “노래로 된 설교”였다. 애찬식은 실제로 간단한 식사가 포함된 찬양이며 모라비안 성만찬은 성찬을 포함하는 찬양이 있다.

진젠도르프가 지은 많은 찬송가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Christi Blut und Gerechtigkeit)”이다. 그는 머리와 마음을 모두 사용하여 감동적인 가사를 생각해내었다. 즉, 그는

루터교적인 이성을 사용한 신학과 모라비안적 “마음의 종교”를 결합한 것이다. 그의 영향력이 현재 까지 모라비아 교회에서 계속되는 것은 예배를 위한 찬송가와 신앙적 가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음악 때문이다. 18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찬송가 들과 성악곡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이 찬송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진젠도르프 는 이를 통해 공동체에 더욱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현대에도 음악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각성시켜 준다.

7. 여성 사역

진젠도르프는 교회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고 그 결과 비판도 받았다. 가령 초기 모라비안 성도 중 안나 니츠만(Anna Nitschmann, 1715-1760)은 1727년 8월 13일의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시 12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젊은 여성들을 모아 예배와 사역을 위한 모임을 조직했다. 그러자 그녀는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아 18세에 리더로 지명되었고 그녀는 18명의 독신 자매가 결혼도 미룰 정도로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하도록 이끌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용감한 선교사들이 되었다. 안나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가서 베들레헴과 나사렛이라는 도시의 건립을 도왔으며 다양한 원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했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 moravian-women).

여성을 찬송가 작가로 간주하지 않던 시대에 그녀는 모라비안 독일 찬송가에 30곡 이상을 썼다. 그녀는 결혼 제안을 두 번 거부했으나 진젠도르프의 아내가 소천한 지 1년 후, 그가 청혼하자 동의했다. 그녀는 평민이었고 진젠도르프는 귀족이었지만 헤른후트 공동체 내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고 이들은 1757년 6월에 결혼했다.

하이트(Johann Valentin Haidt)가 그린 아래 1750년 헤른후트에서 열린 총회 그림은 당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중앙에는 여성을 포함한 주요 지도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다. 진젠도르프의 첫 번째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녀는 재정 업무를 담당했고 안나는 그녀 왼쪽에 있으며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 안나의 왼쪽에 있는 피취(Anna Johanna Pietsch)는 독신 자매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처럼 여성들도 모라비안 교회 총회의 회원으로 토론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성들도 집사, 장로와 사역자로 선임되어 예배를 인도하고 합창단을 위해 설교도 했다. 이처럼 여성 사역이 가능하게 한 것은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것도 분명한데 중앙 테이블에 앉은 24명 중 여성은 6명뿐이었고 그는 중앙에 있다.



그림-2 하이트(Johann Valentin Haidt)의 그림: 헤른후트 총회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ecree_lg.jpg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종교적 필요를 가졌다고 그는 보았다. 1730년대부터 그들은 “합창단”을 결성하되 단원들을 어린 소년 소녀, 나이 많은 소년 소녀, 독신 형제와 자매, 기혼 형제와 자매, 홀아비와 과부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합창단의 예배는 단원에게 가장 적합한 구주의 삶을 강조했다. 가령, 아이들은 예수의 어렸을 때 모습에 대해 배웠고 독신 형제는 독신인 예수께 초점을 맞췄다. 자매 합창단은 예수를 영적 남편으로,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때체로 강조했다. 이것은 합창단원들의 영적 성장을 격려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 결과 구성원이 여성이면 지도자도 여성이어야 했다. 여성 지도력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 성장을 위해 목회자와 신자 사이에 요구되는 친밀감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교회 여성들은 이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여 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리더 자신도 중요한 책임을 수행할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맡은 직책을 넘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의 모델로 공동체를 섬겼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moravian-women).

진젠도르프는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일 가능성은 적고 구주와의 관계에서 기쁨과 사랑을 느낄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본성에 관해서는 여성이 속이는 원죄를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는 남자도 원죄가 있지만, 여자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했는데 정욕은 너무나 명백한 죄악이어서 남자들이 구세주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하도록 스스로 속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zinzendorf.com/pages/index.php?id=moravian-women).

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그의 옹호는 전적으로 신앙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가 여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장려하여 교회 내외적으로 비판도 받았다. 그리하여 1760년 그가 소천한 후 여성의 지도력과 이를 지원하는 관행은 없어졌다. 하지만 그의 여성 사역에 관한 입장은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으며 시대를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아직 여성의 사역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필자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더욱더 개방된 자세와 여성을 평등한 동역자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8. 세계선교사역

헤른후트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1727년에는 형제들이 예나(Jena)와 덴마크로, 1728년에는 런던으로 파견되었다. 1731년에 진젠도르프는 덴마크 국왕 크리스치안 6세(Christian VI, 1699-1746)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코펜하겐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만난 서인도 제도의 성 토마스(St. Thomas) 섬에서 온 노예 앤토니 울리히(Anthony Ulrich)를 헤른후트로 데려왔다. 그 섬에 관한 보고를 듣고 그는 1732년에 요한 도버(Johann Leonhard Dober)와 데이비드 니츠만(David Nitschmann)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는데 그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성육신적 선교’ 모델을 보여주었다. 1735년에는 북미의 조지아와 남미 수리남, 1737년에는 남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 골드 코스트 그리고 1754년에는 자메이카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처럼 이들은 부흥을 경험한 후 15년 이내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선교하여 전 세계 28개 지역에 선교부를 세웠다. 진젠도르프도 1736년 작센에서 추방당하자 성 토마스 섬을, 1741년에는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하여 원주민인 이로쿼이족 지도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서 모라비아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했다.

1760년 진젠도르프가 소천할 때 헤른후트 공동체는 약 300명으로 창립된 지 38년, 첫 선교사를 파송한 지 28년 만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3,000명 이상의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 큰 개신교 선교사역이었으며 그의 모든 관심은 선교와 갱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모라비안 성도를 별도의 교단이 아니라 기존 교단을 활성화하고 선교 분야에서 새로운 사역을 창출하는 역동적 도구로 보았다.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에서 그들은 정착민과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교회와 학교를 시작한 후 루터교회, 개혁교회 또는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교단에 넘긴 경우가 많았다.

“난민에서 선교사로”. 필자는 진젠도르프가 섬긴 헤른후트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이후 그들은 참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고 계속해서 말

숨과 기도로 깨어있자 성령께서는 결국 초대교회처럼 그들을 흠어 땅끝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교단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모습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도전을 주고 있다.

9. 진젠도르프의 유산과 평가

진젠도르프가 소천한 후 모라비아 교회는 1764년 헤른후트에 있는 성과 영지를 인수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미 1737년 현재 베를린의 노이퀼른(Neukölln) 지역인 뵘미슈-릭스도르프(Böhmisch-Rixdorf)로 이사했다. 그는 덴마크의 키르케고르(Søren A. Kierkegaard), 독일의 노발리스(Novalis)³, 레싱(Gotthold E. Lessing),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헤르더(Johann G. Herder) 및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와 같은 신학자들과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19세기 유럽의 부흥 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 결과 그는 5월 10일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에 의해 찬송가 작가이자 교회의 갱신자로 기념되고 있다. 나아가 독일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명이 헌정되었으며 일부 교회 및 학교도 그의 이름을 인용했다. 2000년에는 그의 탄생 300주년 기념 우표가 독일에서 발행되었고 지금까지도 그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 26일 헤른후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가 당시의 사회 구조를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다. 가령, 그가 모든 특권과 권력을 가진 귀족 가문에 태어난 것을 신적 섭리로 여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충실히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평민은 그들의 운명에 따라 태어났고, 그것 또한 신적 계획이며 노예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노예가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신앙이 있는 아프리카 노예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영적으로는 동등하게 대하면서도 - 이것 또한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 그는 노예 제도 자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모라비아 선교사들이 카리브해의 노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모라비아 선교사들은 노예 제도에 반대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에 헌신한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와 다른 폐지론자들에게 노예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zinzendorf.com/content/who-was-count-zinzendorf/).

3) 노발리스(Novalis, 1772-1801)는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이다. “노발리스”는 필명으로, 그의 본명은 게오르크 폰 하르텐베르크 남작(Georg Friedrich Freiherr von Hardenberg)이다. 그의 작품들은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III. 결론

진젠도르프는 슈페너 및 프랑케와 함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18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지도자였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박해받던 개신교 난민을 자신의 영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겸손히 섬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마침내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 그의 신앙은 신학과 이성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살아 있는 주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생명력이 있었다. 그는 성경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소위 ‘로중(losung)’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다. 또한,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체인을 만들어 중보기도 운동을 100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그는 음악 사역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발전시켰는데 그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매우 독창적이며 혁신적이었다. 특히 그는 교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였으며 여성 사역에 대해서도 열린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의 사상과 사역은 현재 한국의 교회에도 깊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교단과 교파로 분열된 한국 교회가 화해하고 일치하도록 그는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아울러 난민들을 자신의 영지로 받아들인 그의 관용과 사랑 그리고 섬김은 우리도 기억하면서 본받아 주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운동을 일으켜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0년간 지속해서 기도한 모범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헤른후트의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한국 교회 또한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는 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그가 프랑케가 힘쓴 교육 사역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최용준, 2017: 245-270). 그는 찬송가나 설교집(Zinzendorf, 1749) 이외에 많은 학문적 저작을 남겼으며(Zinzendorf, 1741, 1749) 초등학교를 세워 가난한 어린이들과 여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나중에는 김나지움도 세웠으나 프랑케처럼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청년들을 주님의 일군으로 키우지는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그의 딸인 베니나(Benigna)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베들레헴에 모라비안 대학을 세웠고 지금은 모라비안 대학교로 발전했지만, 그가 유럽에서도 이러한 교육 사역을 발전시켰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사후에 헤른후트 공동체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도 이 기독교 교육 사역을 등한히 한다면 다음 세대

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한국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현진 (2019). 독일 헤른후트 공동체의 선교 연구. 선교신학, 제56호, 213-252.
- 백현덕 (2023). 헤른후트(Herrnhut) 공동체를 통해 본 한국교회 소그룹 방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오현기 (2012). 귀츨라프의 선교신학에 나타난 진젠도르프의 헤른후트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제20권 4호, 237-278.
- 오현기 (2014). 굿 모닝, 귀츨라프: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서울: 북코리아.
- 오현기 (2024). 귀츨라프 ON 고대도: 1832년 한국 개신교 최초 선교지 찾기 프로젝트. 서울: 북코리아.
- 정준기 (1992). 니콜라스 진젠도르프에 관한 연구. 광신논단, Vol. 4 No.- [1992], 187-203.
- 최용준 (2006).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 최용준 (2012).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관. 신앙과 학문, 제17권 2호 (통권 51호), 229-254.
- 최용준 (2017). A. H. 프란케의 교육사상과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제22권 1호 (통권 70호), 245-270.
- Atwood, C. (1995). *Blood, Sex, and Death: Life and Liturgy in Zinzendorf's Bethlehem*,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 Brecht, M. und Peucker, P. (2005). (Hrsg.) *Neue Aspekte der Zinzendorf-Forsch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Breul, W. (2023). *Die Herrnhuter Brüdergemeine im 18. und 19. Jahrhundert: Theologie - Geschichte - Wirkung* (Arbeiten zur Geschichte des Pietismus) Gebundene Ausgabe, Vandenhoeck & Ruprecht
- Ense, K. A. V. von. (2019). *Leben des Grafen Ludwig von Zinzendorf*. Bremen: Inktank.
- Faix, W. (2012). *Zinzendorf-Glaube und Identität eines Querdenkers*. Marburg: Francke.

- Freeman, A. J. (1998). *An Ecumenical Theology of the Heart*. Bethlehem, PA: Moravian Church in America.
- Freeman, A. J. (2011). Zinzendorf's Theology: A Gift to Enable Life. *Moravian History Magazine* No. 18, ed. By J. and E. Cooper, Glengormley, Co. Antrim, N. Ireland.
Retrieved from <http://zinzendorf.com/pages/index.php?id=zinzendorfs-theology>
- Geiger, E. (2009). *Nik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 4. Auflage. Holzgerlingen: SCM Hänssler.
- Herzler, H. (2010). *Der das Herz der Liebe hat. Nik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 - der "Vater" der Losungen*. Biografisches Hörbuch auf 2 CDs, ca. 150 Minuten, Gerth Medien, Februar.
- Ludwig, R. (2010). *Der Herrnhuter. Wie Nikolaus von Zinzendorf die Losungen erfand*. Berlin: Wichern Verlag.
- Lückel, U. (2016). *Adel und Frömmigkeit. Die Berleburger Grafen und der Pietismus in ihren Territorien*. Siegen: Verlag Vorländer.
- Meyer, D. (2009). *Zinzendorf und die Herrnhuter Brüdergemeinde. 1700-20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Peucker, P. (2021). *Herrnhut 1722-1732: Entstehung und Entwicklung einer philadelphischen Gemeinschaft* (Arbeiten zur Geschichte des Pietismus) Paderborn: Brill Deutschland.
- Plitt, H. (1869-71). *Zinzendorfs Theologie*, Volume 1-3. Gotha: Perthes.
- Pfister, O. (2019). *Die Frömmigkeit des Grafen Ludwig von Zinzendorf*. Bremen: Inktank.
- Reimann, C. (2019). *Die Tagebücher des Grafen Casimir zu Sayn-Wittgenstein-Berleburg (1687-1741) als Selbstzeugnis eines pietistischen Landesherrn*. Dissertation 2017 Kassel: Kassel University Press.
- Richter, P. (2018). *Graf 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 Kurzbiografie*. Langerwehe: Folgen Verlag.
- Schneider, H. (2004). *Zinzendorf.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and 36. Berlin/New York: De Gruyter, 691-697.
- Smaby, B. P. (2011). "Moravian Women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http://zinzendorf.com/pages/index.php?id=moravian-women>
- Spangenberg, A. G. (1772-1775). *Leben des Herrn Nicolaus Ludwig Zinzendorf*, Barby.

Taylor, H. J. & Hamilton, K. G. (1967). *The History of the Moravian Church*. Bethlehem, PA: Moravian Church in America.

Vogt, P. (2006). Gloria Pleurae! Die Seitenwunde Jesu in der Theologie des Grafen von Zinzendorf. *Pietismus und Neuzeit*. 175-212.

Weinlick, J. (1956). *Count Zinzendorf*. New York and Nashville: Abingdon Press.

Zinzendorf, N. L. von. (1735). *Teutscher Gedichte Erster Theil*. Herrnuth: Waisenhaus.

Zinzendorf, N. L. von. (1741). *Neueste Theologische Bedencken*, Schreiben und Kirchliche Urkunden. Leipzig: Fuchs.

Zinzendorf, N. L. von. (1749). *Zweiunddreißig einzelne Homilien oder Gemeinere den Jahren 1744-46*. Görlitz.

Zinzendorf, N. L. von. (1749). *Der Evangelisch-Mährischen Kirchen-Diener Abgenöthigte Gewissens-Rüge für den Verstand und Willen dererjenigen unter ihren Gegnern, welche sich zur Evangelischen Religion bekennen, und die Brüder so bitter anfeinden*. Leipzig und Görlitz: Marcheschen Buchhandlung.

Zinzendorf, N. L. von. (1751). *Verliebtheit eines Sünders gegen die Wunden Jesu*. Görlitz.

losungen.de (2024년 11월 20일 검색)

www.24-7prayer.com (2024년 11월 19일 검색)

www.moravian.org (2024년 11월 21일 검색)

zinzendorf.com (2024년 11월 22일 검색)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omenico.jpg (2024년 11월 21일 검색)

zinzendorf.com/pages/index.php?id=ecce-homo (2024년 11월 22일 검색)

zinzendorf.com/pages/data/uploads/decree_lg.jpg (2024년 11월 22일 검색)

zinzendorf.com/content/who-was-count-zinzendorf (2024년 11월 23일 검색)

zinzendorf.com/pages/index.php?id= moravian-women (2024년 11월 23일 검색)

진젠도르프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Zinzendorf's Biblical Worldview and Work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진젠도르프 백작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역에 관한 고찰이다. 그는 슈페너 및 프랑케와 함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18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킨 신앙의 지도자였다. 먼저 그는 박해받던 체코의 개신교 난민들을 자신의 영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하게 한 후 마침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 그의 신앙은 신학과 이성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살아 있는 주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생명력(vitality)이 있었다. 그는 성경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소위 '로중(losung)'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으며 동시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 체인을 만들어 중보기도 하는 운동을 100년 동안 지속했다. 나아가 음악 사역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발 전시키는 등 그의 사역은 매우 창의적이었고 혁신적이었다. 또한, 그는 교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였으며 여성 사역에 대해서도 일찍 눈을 뜬 시대의 선구자였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그의 유산이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주제어: 진젠도르프, 헤른후트, 로중, 기도, 세계 선교